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 반도체·의약품·농수산물식품 등 국내 영향 점검

- 반도체·의약품 등 대미 적극소통 중요, 농수산물식품 수출 관련 국내영향 분석
-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사업 신속집행,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 중심 기업으로 처리 철저

정부는 5.12(월) 14: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 참석자: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중기부·고용부·금융위 등

참석자들은 최근 美-英 무역협상 타결(5.8), 美-中 무역협상 진행(5.10)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먼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 및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식품의 경우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수산물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의 경우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도 점검했다.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기업 애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export119.go.kr)을 통해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1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jeeminkim@korea.kr)
			사무관	조선희 (whwns56@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안영신 (justice6589@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